

다. 그러나 제47회 대회부터 동영상 평가제를 도입한 이래 지방 참가자들의 접수가 크게 늘었다”는 게 대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본선의 주제는 예선 주제와 동일하다. 예선에선 스피치 동영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면 본선은 심사위원 앞에서 에세이를 발표하는 식이다. 예선에선 참가자의 발음, 억양, 에세이 주제만 평가요소가 됐다면 본선에선 억양과 발음, 에세이 주제의 재평가는 물론 말의 빠르기와 제스처, 액센트, 아이 컨택, 돌발질문에 대한 상황 대처능력 등을 두루 평가한다. 스피치 주제에 대한 개별 심화질문도 있는데 손군은 ‘근본적으로 한국 영어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외국인 선생과 한국인 선생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한국 영어교육의 미래’ 등 3개의 꼬리 질문을 받았다. “본선에선 참가자가 자신이 작성한 에세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와 액센트 처리능력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발음은 영어환경에 노출된 시간만큼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부분이지만, 액센트와 억양은 직접 외국인과 일대일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이상 체득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고려 없이 발음에만 신경 쓰다 보면 말의 속도가 빨라지고 높낮이도 전혀 없는, 건조한 에세이 낭독이 될 뿐이죠.” 손군은 “본선 스피치 후엔 꼬리 질문이 항상 3~4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에세이 주제에 따른 질문거리를 미리 만들어보고 이에 대한 답을 작성·발표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목전문학원 · 조기유학 간다고 영어 잘하나

손군이 자라온 환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손군을 두고 ‘청심국제 중 재학생이 전국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까지 수상했으니 영어 전문 학원은 물론 해외체류경험도 당연히 있을 거야’라는 질투 섞인 폄하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손군이 재학 중인 청심국제중은 입시전형에서 영어인증시험인 TOSEL 성적표를 받고 영어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유학은 아니더라도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아이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추측일는지 모른다. 손군의 어머니 강금희(41) 씨는 이러한 근거 없는

추측들에 대해 할 말이 많은 듯했다. “하늘이가 ‘영어를 좀 하는 아이’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입시와 대회 참가를 위해 특목학원을 등록시킨 적도 없고 조기유학은 더더욱 보낸 적이 없어요. 초등 6학년 때 참가한 모 백화점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부상으로 필리핀 단기 연수 티켓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하늘이가 티켓수령을 거부해 달랑 케이크 하나만 받아 들고 온 기억도 있어요. 하늘이는 남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따라가는 영어 열풍에서 약간 비껴난 노선을 고집하는 아이였죠(웃음).” 아직까지 마산엔 대형 프렌차이즈 특목학원이 들어서지 않은데다 서울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특목입시와 대회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루트가 없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들이 손군으로 하여금 학원에 매달리지 않고 스스로 영어공부를 찾아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돼주었다는 게 강씨의 전언이다.

손군 역시 “솔직히 말하기 비법이라고 공개할만한 공부법이 따로 없다”며 “영어는 의사소통과 학습을 위한 도구일 뿐인데, 이를 목적으로 여기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나는 단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영어를 대해왔을 뿐이고, 이러한 학습 마인드가 결국엔 영어 공부에 흥미를 주는 수단이 돼 준 것 같다”고 제 생각을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군에게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자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알찬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영어의 유창함만으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말하기 대회라 해도 각 전형들을 살펴보면 쓰기 듣기 읽기 능력을 모두 평가하거든요. 단 말하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의 영어수준이 중·상급 이상이라면 한 달에 2권 이상의 원서는 읽어 보길 권해요. 흥미 위주의 소설 말고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실력 있는 사람이 쓴 글은 목표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글들을 계속 읽고 직접 써 보면 글 쓰는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잡히고, 내가 쓴 글인 만큼 주장과 의견 펴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지요.”

/ 장은희 기자 blog.veritas-a.com/miner

취재 후기 **veritas-a.com** 클릭 

^αTip 전국 영어스피치 콘테스트란?



영자신문 코리아헤럴드가 1966년부터 개최해온 영어스피치 대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및 해외 체류 경험 2년 미만인 초·중·고등·대학생을 참가 대상으로 한다.

대회 참가 희망자는 대회 홈페이지에 3~4분 미만의 자유주제 스피치 동영상과 원고와 함께 접수해야 한다. 원고는 자유주제로 작성하되 헌법에 부합하는 주제와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

다. 먼저 원고 평가로 예선 통과자를 선발하며 다시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스피치 동영상과 원고를 재평가해 본선 진출자를 최종 선발한다. 주요 평가 요소는 콘텐츠의 내용과 스피치 말투, 발음 등이며 총 100점 만점에 각각 30점이 책정되고 기타 제스처, 억양, 아이컨택 등이 기타요소로 10점 반영된다.

본선 스피치 주제는 예선과 동일하나 예선 동영상평가와는 달리 심사위원 앞에서 스피치를 해야 한다. 참가자의 억양과 발음, 발표태도는 물론 주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하는 것인지, 발언주제가 참가자 수준에 적합한지, 내용이 일관적이고 논리적인지, 원고를 보고 읽는지 외워서 읽는지 등 여러 영역을 심사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발하게 된다. 심사위원들이 스피치 주제에 대한 개별질문을 참가자에게 던질 수 있으며 영어로 질문을 하면 참가자 역시 영어로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각 부문(초등·중등·고등·대학별 학년과 상관없이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을 선발한다. 연 1회 대회가 시행되는데 지난 48회 대회는 10월에 서류접수를 시작해 11월에 대회가 치러졌다. 참가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이뤄진다. 대회 진행상 위 내용은 변동 및 조정될 수 있다.

문의) 02-727-0312, 0462/www.koreaherald.co.kr

www.paradisehotel.co.kr



taste of paradise spa
파라다이스 스파를 만나,
특별한 휴식을 꿈꾸다

파라다이스에서는 휴식의 감동도 다릅니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이 드리는 다양한 혜택과
프리미엄 스파로 누구나 꿈꾸는 특별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천재교육, 초등 학습서 할인 이벤트

교육출판 전문기업 천재교육이 재미있게 읽으며 실력을 다질 수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위한 기획도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리틀 천재 홈페이지(www.littlechunjae.co.kr)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초등 1학년을 위한 전천후 선행학습서 ‘똑똑한 1학년을 위한 개념스쿨’ 시리즈와 교과 과정과 연계한 논리 학습서인 ‘초등 필독서’ 시리즈로 기획도서를 구성했다. 각 시리즈는 9900원의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똑똑한 1학년을 위한 개념스쿨’ 시리즈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7세부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습서로 만화, 그림, 도표, 퀴즈 등 1학년 교과서의 개념을 설명한다. ‘초등 필독서’ 시리즈는 교과서의 학습 목표에 맞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논리학습서이다. 글을 읽은 뒤 내용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논술 다지기 문제’가 수록됐다. 1577-0218/www.littlechunjae.co.kr